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스토리·시청률 시원시원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 다시 등장한 오대환과 더불어 악덕 갑질계의 최고봉 송옥숙의 안하무인 갑질에 제대로 열 받은 김동욱의 반격이 시작되어 안방극장을 열광하게 만들었다.

지난 7일 밤 방송된 MBC 월화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극본 김민지 | 연출 박원국) 19-20회는 명성그룹의 최서라(송옥숙) 회장의 상상 초월 갑질 횡포에 맞선 조진갑의 반격으로 80분을 꽉 채우며 시청자들에게 짜릿하고 통쾌한 장풍 사이다를 선사했다. 여기에 조진갑이 위기의 순간에 달릴 때마다 적재적소

에 등장해 깨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완벽한 타이밍을 노린 어시스트와 퍼펙트한 액션까지 천덕꾸러기(김경남)와 백부장(유수빈), 그리고 오대리(김시은)는 어김없이 갑질 응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뿐만 아니라 점차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한 우도하(류덕환)와 교도소에서 출소 하자마자 조진갑에 대한 복수를 꿈꾸는 구대길(오대환) 등 매력 만점 캐릭터들의 향연은 '조장풍'만의 매력을 배가시키기에 충분했다.

이와 같은 폭발적인 반응에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19회 6.8%,

20회 8.4%의 시청률(닐슨코리아 수도권가구 기준)을 기록하며 지상파와 케이블을 포함한 모든 드라마 중 1위의 자리를 또 한 번 차지했다.

여기에 광고주들의 주요 지표이자 채널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2049 시청률 20회가 3.6%를 기록, 지상파와 케이블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 중 1위의 자리에 올랐다.

이로써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수도권 가구, 2049시청률 그리고 7.4%를 기록한 전국 시청률까지 모두 1위의 자리에 등극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특히 지난 20회 엔딩에서 조진갑

갑질 횡포에 맞선 조진갑의 반격 통쾌함 선사

이 최서라를 찾아가 "아줌마, 내가 조진갑 그 씨어빠진 뇌 구조 수술해 수술해 갈 테니까"라는 대사와 함께 통쾌한 역습 성공을 담은 장면은 순간 최고 시청률이 무려 9.3%까지 치솟았고, 이는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의 최고 순간 시청률을 기록해 갑수족 뜨거워지는 안방극장의 인기를 실감케 하며 파죽지세 흥행을 이어갔다.

지난 방송에서 조진갑(김동욱)은 갑질계의 대모 최서라에 이어 조진갑을 향한 복수를 꿈꾸며 자 출소하자마자 바지(?)갑질을 일삼는 구대길까지 한 큐에 위협하는 장풍 사이다 활약을 선보였다. 먼저 구대길에게 고의로 낸 교통사고에 당한 조진갑은 이를 먼저 눈치 채고 절호의 타이밍에 등장한 천덕꾸러기 백부장, 그리고 오대리의 도움으로 또 한번 짜릿한 통쾌함을 선사하며 구대길을 응징했다.

교통사고로 인해 머리에 피까지 흘리는 부상을 입었지만 조진갑은 그를 치료할 틈도 없이 바로 명성병원으로 달려가 최서라를 만나고자 했다. 하지만 명성병원 VIP 병동에서 환자복을 입고 여유롭게 보내고 있는 양태수(이상아)를 맞닥뜨리면서 또 한번 냉혹하고 차가운 현실에 상처받았다. 이에 양태수는 "대한민국에서 재벌이, 재벌 아들 딸이 빵에서 썩는 거 본 적 있어?"라며 객풍을 날렸고, 이 대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과도 절묘하게 매치가 되어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냈지만, 부정할 수 없는 그

현실에 또 한편으로는 씁쓸함도 남겼다.

이에 제대로 열 받은 조진갑은 "나를 딱 기다려!"라는 경고로 남겼고, 그 때부터 그의 반격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 반격의 과정은 마냥 순조롭지는 않았다. 공사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해고된 인턴 의사 이창규의 유품인 핸드폰을 찾아내기 위해 조진갑은 공장 인부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작은 정보라도 얻고자 했지만,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공장 인부들은 조진갑을 멀리했다. 또한 갑의 간절한 도움 요청을 외면했고 우도하도 제 발로 진갑을 찾아와 더 이상 나서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최서라는 10년 전 진갑을 폭력교사로 낙인 찍게 만든 그 사건처럼 또 다시 그를 뇌물 받은 공무원으로 만들기 위한 작전을 시작해 이를 보는 시청자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며 긴박감을 선사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조진갑이 아니었다. 조진갑의 계속된 특별근로감독관 요청에도 꾸준히 거절하던 김지란(차정원) 검사는 언연 중에 단체 청원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꿀팁을 전해줬고, 그 소식을 들은 공사장 인부들도 발 벗고 나서게 되면서 조진갑의 역습에도 본격 시동이 걸리게 된 것. 무엇보다 천덕꾸러기 제대로 한 건 했다. 천덕꾸러기 그나 풀이자 씌어나 말숙(설인아)과의 페이크 데이트 끝에 그녀의 핸드폰에

도청 앱을 설치하는데 성공했고, 그를 통해 최서라가 조진갑에게 비타민 음료 대신 뇌물이 들어간 박스를 전한다는 첩보를 알아내게 된 것.

이후 조진갑은 골프를 치고 있는 최서라를 찾아가며 장풍 사이다 작렬 타이밍이 왔음을 예고했다. 비굴미가 넘치는 표정으로 카트를 몰고 온 조진갑은 최서라 앞에서 비타민 음료의 박스를 번쩍 들어 올려 그녀의 면전에 뿌려버렸다. 이어 조진갑은 "제가 딱은 좋아하는데 이런 못 먹는 딱은 안 좋아해서요"라고 말한 것에 이어 "뇌물수수죄는 알았는데 뇌물수수 조작자는 형법 몇 조에 해당하죠?"라고 역으로 물으며 더욱 업그레이드 된 장풍 사이다를 작렬하며 시청자들에게 속이 뻥 뚫리는 '조장풍'만의 매력을 여과 없이 발산했다.

이처럼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악덕 갑질 계보와 이에 맞대응 하는 조장풍의 핵 사이다 응징 더욱 업그레이드 된 사이다 매력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을 '조장풍 홀리'에 빠질 수 밖에 없게끔 만들었다. 여기에 조진갑의 결이 강하게 하고 있는 천덕꾸러기 그의 갑질 기획 패밀리와 점점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한 우도하, 그리고 점점 더 진화하는 갑질을 보여주고 있는 악덕 사업주들의 활약은 회가 거듭될수록 시청자들을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에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은 말발굽이 되어 앞으로의 '조장풍'이 더욱 기대를 모은다.

한편, MBC 월화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매주 월, 화 밤 10시에 방송된다.

'가시나들', 新 가족 예능 탄생 예고



MBC 파일럿 예능 '가시나들'이 가족의 달 5월, 따뜻한 예능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가시나들'은 인생은 진작 마스터했지만 한글을 모르는 할매들과 한글은 대략 마스터했지만 인생이 궁궁한 20대 연예인들의 동고동락 프로젝트다.

오는 19일 첫 방송되는 '가시나들'은 경상남도 함양의 다섯 할머니

들과 배우 문소리, 장동윤, 가수 육중완, 최유정, 우기, 수빈, 이브까지 특급 연예인 군단이 모여 할머니들의 좌중우를 한글 공부를 도움 것으로 예고해 예비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작진을 당황하게 만드는 할머니들의 엉뚱함과 예측 불가의 발상상황들도 '가시나들'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재미 포인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신 예능 캐릭터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가시나들'의 첫 방송이 기다려진다.

다큐멘터리 영화 '칠곡 가시나들'의 연작으로 만들어지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영화가 긴 호흡으로 칠곡 할머니들의 꾸밈없는 일상과 글을 담백하게 담아냈다면 '가시나들'은 같은 소재를 예능이라는 그릇으로 옮겨 담아 연예인들과 함께 조금은 특별한 시간을 경험하는 할머니들의 유쾌하고 귀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들'은 한글교육과 노년층의 삶이라는 같은 소재를 지상파 예능으로 제작, 송출함으로써 극장에 갈 수 없는 노년층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다양한 세대의 더 많은 수용자들이 노년층 문화교육에 대해 알게 되어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문소리와 육중완은 할머

니들의 한글 선생님과 보조 교사로 활약한다. 또한 장동윤과 최유정, 우기, 수빈, 이브로 구성된 다섯 명의 20대 짝꿍들은 세대 간 소통을 돕는 유휴역할을 할 예정. 짝꿍들이 할머니들과 함께 공부하는 최종 목표는 할머니로 하여금 일기, 시와 같은 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열 지리를 사수하고 수업이 끝난 후에

는 할머니의 집으로 함께 하교해 할머니의 일상을 함께 보낸다. 짝꿍들은 할머니들의 이야기로부터 여성이기에 견뎌야 했던 세월들을 공감하고 위로한다. 할머니를 또한 20대의 짝꿍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젊은 날을 떠올리며 되새기고 글로 적어 나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며 화합이 더해져 재미를 배로 높일 예정이다.

7080 다섯 할머니들부터 2040세대 연예인 출연진까지 전 세대가 어우러진 '가시나들'은 매주 서로를 이해하며 점차 배워가는 모습을 통해 세대 간의 공감과 소통을 끌어내는 일요일 저녁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하는 가족 예능으로 사랑받았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시나들'은 오는 19일 오후 6시 45분 첫 방송 예정이다.

박효신, 3일째 음원차트 1위 석권



신곡 공개마다 파란을 일으키는 박효신이 지난 6일 발매한 싱글

'Goodbye'로 3일째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박효신의 새 싱글 'Goodbye'는 8일 오전 11시 기준 기준 멜론, 지니 뮤직 등 주요 차트에서 이틀째 1위를 유지하며 음원차트를 점령하고 있다. 한동안 정체된 음원 차트를 모두 뒤집으며 음원강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

'Goodbye'는 8일 정규 앨범을 대 표하는 메인 곡들 중 하나로, 답답

함과 깊은 슬픔이 공존하는 폭넓은 감정을 가진 박효신의 풍부한 보컬 역량이 여과없이 드러난 곡이다. 놓아주어야 하는 것에 대한 인정, 그리고 과거의 애뜻하지만 필연적인 작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가사와 유려한 멜로디, 보컬로 이를 더욱 극대화했다.

박효신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대중성 또한 모두 잡은 곡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박효신의 세계관이 녹여진 이별을 대하는 가사는 초고음을 넘나드는 클라이맥스에서 오려려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곡의 완성도가 느껴지고 20년차 가수의 관록과 노련미도

알 수 있으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진화하는 것이 느껴진다는 반응이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박효신 그 자체다', '목소리 하나만으로 깊은 울림과 힐링이 된다', '분명 이별곡인데 아름답게 느껴진다', '오랜만에 귀가 호강한다. 신이 귀환했다' 등의 대중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음원차트 장기점령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박효신은 이번 싱글 'Goodbye' 발매 이후, 오는 6월 29일부터 약 3주간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KSPD DOME)에서 단독 콘서트 '박효신 LIVE 2019 LOVERS : where is your love?'를 통해 팬들과 만난다.

오늘의 순세 2019년 5월 9일 목요일 (음력 4월 5일)

<p>▶새끼 쥐 비 온 뒤 땅이 단단해지듯 서서히 고동이 사라지고 옷을 수 있는 날이 찾아올 수. 1, 4, 12월생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먼저 진실과 자신감을 드러내 상대를 무너뜨려라. 적극적인 행동으로 제압하여 이끌어 나갈 것. 복록이 행운.</p>	<p>▶새끼 고양이 감정을 억제하고 조용하게 실속을 찾아가 앞길에 광명이 비칠 운. 4, 5, 7월생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 결단을 내려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라. 1, 2, 3월생 중상모락에 주의하고 진실성을 보일 것.</p>	<p>▶새끼 원숭이 상대에게서 진실 그 자체를 보라. 금전은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이지만 금전으로 모든 것 다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을 알 것. 내면이 수없이 많은 가식들로 차 있으니 더 넓고 높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p>
<p>▶새끼 개 독선적인 생각이나 고집스런 태도를 취하지 말 것. 4, 8, 12월생 본인의 성격이 모난 것은 모르고 새로운 것만 찾으려 눈 돌리지 말 것. 5, 7, 10월생 주식 등 투기에 손대면 실패수. 일확천금을 꿈꾸지 말고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라. 붉은색은 삼가.</p>	<p>▶새끼 돼지 지금은 큰일에 신경 쓸 때. 힘들다고 감정을 호소해도 들어주는 이 없는 격. 5, 11, 12월생 좌절은 금물. 지난일은 벗어 던져버리고 마음을 비운 채 새롭게 도전하는 길에서만 성공이 보인다. 강인함을 드러내야 순리대로 풀려 나감을 알라.</p>	<p>▶새끼 닭 강한 성격 탓에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일 종종 있으니 자제할 것. 같이 사는 사람 편하게 해준다고 큰소리 치지만 상대는 편안하지 못하다. 신경질만으로 고집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 2, 4, 5월생 감정선은 하는 일 힘겹게 만드니 피하라.</p>
<p>▶새끼 고양이 2, 7, 11월생 절제하지 않아 빚더미에 올라 설 수 있으니 주의. 생각이 깊고 겸손한 면이 있다. 자신의 재주를 믿고 재산 증식을 하라. 7, 8, 10월생 무리하게 앞서가다 돌부리에 넘어 넘어질 수.</p>	<p>▶새끼 말 상대의 말 흘려 넘기지 말라. 모든 일 자기생각대로 믿고 나가려는 것은 좋으나 지나치면 무시당할로부터 비난 받을 수. 1, 2, 5, 7월생 자신만 믿고 뛰어들면 생각지 못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으니 달콤한 말에 현혹은 금물.</p>	<p>▶새끼 토끼 자존심이 강한 것은 좋지만 상대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줌이 좋게다. 7, 9, 11월생 과거는 과거의 일로 접어들 것. 앞날을 위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두 번의 실패가 없지 않게 된다.</p>
<p>▶새끼 토끼 될 수 있는 한 정면충돌은 피하라. 1, 3, 12월생 철없이 자기본심을 드러내 보이다가 본인만 손해 볼 수. 4, 6, 8월생 함부로 처신하면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나기 힘들 듯. 4, 5, 6월생 붉은색으로 자신을 나타내면서 도전하라. 목재, 섬유업종은 길.</p>	<p>▶새끼 토끼 스스로 밖으로 나타내어 활기찬 생활을 해보라. 7, 9, 10월생 꿈이나 낭만 같은 것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사회의 흐름에 민감해져야 현대 감각을 익힐 수 있는 법. 쥐, 토끼, 말미의 도움을 받을 것.</p>	<p>▶새끼 토끼 걸로만 강해 보일뿐 정과 의리에 약하다. 인정에 끌릴 수 있는게 약점이나. 4, 5, 7월생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안다고 중요한 시점에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면 후회의 날을 보낼 수. 소, 토끼, 닭과 의논하여 길을 모색할 것. 붉은색이 길.</p>